더 이상의 도매상 연쇄부도는 막아야 한다

출판시장의 급격한 위축, 할인점 등장 등 위기상황…출판인프라 스스로 구축해야

한기호
창작과비평사 영업기획실장

지난 2월 39년의 역사를 가진 송인서림(대표 송택규, 1959년 1월 9일 창립)이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최근 2년간 도매상들의 부도가 계속되었지만 송인의 부도가 가져다준 충격은 그 어느때보다 컸다. 송인은 연간 매출이 250여억원이나 되는 국내 2위 규모의 단행본 도매상이라 출판사에 안겨다준 피해액이 크기도 했지만, 그동안 군소도매상이 불가피하게 도산한다 하더라도 출판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 살아남아주어야 할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었던 5~6개의 도매상 중 하나인 송인이 결국 무너졌다는 사실에 출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송인이 최근 몇년간 경영부실로 인한 부실 채권의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송인을 견제한 출판사들이 없지 않았지만, 창업자의 출판서적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그동안 축적된 자산을 믿고 송인을 지원했던 출판인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송인의 부도 이후 출판서적계에는 이제 드디어 도매상의 도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서점에 별다른 조건없이 신용위주로 책을 공급하는 위탁거래의 관행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야말로 신용공황 상태에 이른 것이다. 송인의 부도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뒤에는 이런 신용공황으로 인하여 금융권에까지 신용을 상실하여 관련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신용' 공황의 상태에 이르러

이미 용지는 현금이 없으면 구하기 어려워진 데다 인쇄·제본 등의 업체들도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송인의 부도 전후에 터져나온 4개 도매상의 합병설, 몇 도매상의 위기설 등이 난무하고 심지어

지난 2월 6일 출판문화회관에서 가진 송인서림의 부도상황 설명회.

앞으로 과연 살아남을 도매상이 존재할 것이냐는 극단적인 위기론까지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송인의 부도가 왜이렇게 큰 충격을 관련업계에 던져주고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판시장 상황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아 과연 출판업이 제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위기감 때문이다.

출판계 공멸위기에 대한 긴박한 움직임

'송인' 부도로 긴급 대책회의…대정부 호소문 채택

최근의 출판계 현안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출판인들.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는 1월말 60여억원의 최종부도를 낸 송인서림(대표 송택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가 시작됐다. '서울출판인포럼'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실제 피해출판사의 대표 등 30여명이 모였고 이번 송인의 부도사태가 곧 도매상 연쇄부도의 신호탄임을 절감하는 출판인들의 비장한 발언이 오갔다. 김언호(한길사 대표) '서울출판인포럼'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새 대통령과 국민에게 드리는 출판인들의 호소〉문(본문 5쪽 참조)을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하는 등, 출판계 공멸의 위기의식을 대정부 발언으로 발빠르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건의문에서 발의된 '출판유통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김언호·이승용(홍익출판사)·임성규(문이당) 등 직접 피해출판사 대표들에 조직 구성을 위임키로 했다.

이틀뒤 2월 6일 오후 3시, 송인서림측의 송택규 대표가 나와 설명회를 가진 출판문화회관 강당은 출판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어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줬다. 송사장은 39년간 몸담아온 필생의 사업을 출판계에 피해를 주면서 끝내게 된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재개할 수 있다면 모든 재산을 다 털어 변제하겠다"고 사죄의 눈물을 흘리며 강력히 재기의 뜻을 비쳤다.

출판인들은 신의로 밀어준 도매상의 '밀실병합설'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을 제기했으나 실질적인 채권단을 구성, 분과위원회에서 피해범위와 자금추적, 서점관리 등의 실무를 맡기로 결정하고 자리를 파했다. 이날 이후 최선호(세계사) 이승용(홍익출판사) 김병준(지경사) 송영석(해냄) 장의덕(개마고원) 김영범(김영사) 강태형(문학동네) 고석(이레) 등 8인의 '채권단집행위원회'가 재산권을 인수, 실질적인 대리경영을 맡고 있다 또, 감사에 김병준·고석·임건석(출판영업인협의회 회장), 재산관리인에 한기호(창작과비평사 영업기획실장) 등이 맡아 회계사 입회 아래 재산 실사와 피해액 조사에 들어갔다. 송인은 2월 9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한편 출판인들이 채택한 '대정부 호소문'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 9일 나춘호(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허창성(한국출판유통 대표이사) 박기봉(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박맹호(민음사 대표) 최학수(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등 5인이 문체부 문화산업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판계 현안과 정부지원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출판계 최근 동향이 보고됐다.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200억원의 긴급자금을 융자키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갔으나 사실과 다르며,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사실만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언호 사장은 "책은 문화의 근본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바랐으며, 박기봉 이사장은 "긴급자금이 수혈되면 출판계 전체가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의 상환을 책임질 수 있는 조합에서 그 운용을 맡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출판인들 역시 아직은 실체가 없는 200억원의 출판계 자금지원설이 사실로 확인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김지원〉

'송인'의 부도 이후 출판계에는 도매상의 도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수록 평상심을 유지, 시장을 살릴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피해를 본 출판사들이 결성한 '출판유통발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도매상을 지원하는 한편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도매상의 경영상태가 빠른 시일 안에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행본 도매상들은 차별화된 영업특성이 없다. 취급하는 상품도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오로지 소매점의 마진을 늘려주거나 잔고를 많이 봐주는 것으로 경쟁을 해왔다.

이러한 무리한 경쟁은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하였다. 도매상의 마진율이 10% 이상은 되어야 유지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매상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마진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음을 할인하여 어음을 막는 일을 반복해왔다.

IMF한파가 불어닥친 이후에는 연 35% 이상의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할인을 하여 어음을 막아왔다. 현 상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여겨진다. 4개 도매상의 합병설은 일회성 해프닝으로 귀결되었지만, 합병설이 등장하게 된 것도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출판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도매상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도매상들의 매출 중에서 신간으로 발생되는 매출의 비중은 25% 내외였다. 그러나 최근 단행본 출판사들의 신간발행량은 예전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출간되고 있는 출판물 중에서도 대형기획물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출판사들은 시장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도매상들의 매출은 30% 이상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2~3개월만 지속되면 매출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그러면 과연 버텨낼 도매상이 있겠는가 하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할인점 등장으로 정가제 붕괴 우려도

셋째, 할인점의 계속적인 등장과 일부 서점들의 할인판매 공개선언으로 정가제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도매상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대여점의 여파가 한풀 꺾인 다음 곳곳에 등장한 할인점은 인근 서점들을 사지로 몰아넣다시피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소매상들은 학습참고서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자구책으로 할인판매를 공식선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서울 강남의 한 지역 서적상조합은 모두가 할인판매에 돌입하기로 이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서점을 비롯한 모든 서점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정가제는 단행본 출판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서점 공간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정가제가 무너지면 서점들의 과도한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자금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소매서점부터 문을 닫기 시작할 것이다. 소매점들의 폐업은 도매상의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이미 많은 출판사들이 도산 상태로 빠져들었는데, 이들 출판사의 도산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도매상의 도산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도매상들은 도산한 출판사의 책을 반품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이로 인한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경영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일부 출판사들은 일부 혹은 전체 도매상들에 출고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의 누적된 부도 피해로 인하여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개별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다. 그야말로 책을 팔아보아야 남는 것이 없으므로 '무책(無冊)이 상책(上策)'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동요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별 출판사가 살아남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책이 시장의 소멸로까지 간다면 결국에는 공멸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평상심을 유지하여 냉정하게 시장을 살릴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출판유통발전위원회'의 구심점 역할 기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판사들이 독자를 유인할 기획상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의 출판시장은 시장을 주도할 신간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영웅은 난세에 나듯이 대형상품은 시장상황이 어려울 때 등장한다는 각오로 평상심을 갖고 출판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업계 차원에서 도매상을 살릴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출판계를 위해 꼭 필요한 도매상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살려내야만 한다. 업계 발전을 위한 집약된 안이 나오고, 그 안이 개별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송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출판유통발전위원회'가 결성되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가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 도매상들을 지원하는 한편 견제·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도매상들의 부도 사태에 거의 무대책으로 당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린 상태에서 굳건한 초석을 다시 놓는 자세여야 한다. 다른 업계는 한 업체의 부도액만도 수천억 혹은 수조원에 이르는데, 출판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5백억원이면 충분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할 정도로 출판산업이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출판인 스스로가 부끄러워 해야만 한다. 문화마인드를 갖지 못한 정치권력이 아무런 출판진흥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출판인들은 출판자본을 축적하여 출판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출판계 소식

'출판금고' 새 이사장에 김낙준씨

2월12일 이사회에서 선임

(재)한국출판금고는 지난 2월12일 정기이사회에서 제7대 이사장에 김낙준 (주)금성출판사 회장을 선임했다. 정진숙 전 이사장은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됐으며, 최학수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은 이날짜로 퇴임했다. 새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낙준 신임 이사장.

▲이사:오지철(문화체육부 문화산업국장, 당연직) 나춘호(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당연직) 김광인(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 당연직) 김현식(한국도서보급(주) 회장) 허창성(평화출판사 대표) 전병석(문예출판사 대표) 이승하(성광문화사 대표) 임홍조(영재교육사 대표) 김경희((주)지식산업사 대표, 신임) ▲감사:김준식(대광문화사 대표) 유광종(한국이공학사 대표)

'IMF시대…위기극복 전략' 포럼 개최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출판문화회관에서 〈IMF시대의 출판산업 위기 전략〉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한울의 김종수 대표와 대한출판유통의 허창성 대표이사, 대한인쇄연구소 홍우동 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강희일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회장·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이상문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상무이사·전정희 국민일보 문화부 기자·임건석 출판영업인협의회 회장·윤세민 경인여전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불황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파주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 정기총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18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1997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 '1998년도 사업 및 수지예산서(안) 승인' '부동산 취득의 건' '임원선출'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한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사업은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올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